新世代

28

정치관

"투표일은 쉬는날" 놀러가기 바빠

韓-藥분쟁등 직접利害있을때만 「관심」

신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면서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는 강한 응집력을 보인다. 최근 대학가의 정치집회(위)는 썰렁한 반면, 약대생들의 의약분업 쟁취결의대회(아래)는 열기가 대단했다.

『정치요,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관심없어요.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대체적으로 신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 말랑말랑하지 않고 딱딱하다는게 첫째 이유다. 또한 정치인들끼리 모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세대 자신들의 일로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

취재에 응한 대학생들을 가운데 현직 국회의장이나 집권당 사무총장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학생은 열명에 한명꼴도 채 되지 않았다. 정치외교학 사회학등 비교적 관심이 클 것 같은 과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치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대학진학대신 일찍 사회생활을 선택한 젊은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양그룹산하 기업에 근무하는 鄭모양(23)은 한번도 투표를 해본적이 없다. 지난해 총선때는 친구들과 함께 청평유원지에 놀러갔었다.

『후보자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였고 모처럼의 놀수있는날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라고 정양은 투표불참이유를 설명한다. 「투표일」하면 「쉬는날」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는 젊은이들이 상당수다.

60%이상 "무관심"

제일기획부설 마케팅연구소의 여론조사결과 60%이상의 20대 젊은이들이 아예 정치는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사실 이같은 현상은 별로 새로운 얘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식민통치 군사독재등 젊은이들을 고뇌하게 만드는 특수한 시대상황이 아닌한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엔 너무 바쁜 시절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정치는 일반 시민들의 관심영역에서 멀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요즘신세대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무관심은 이전 시대의 그것에 비해 몇가지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신세대들은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주제 자체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정치가 중요하지않다고 말하는 신세대는 거의 만나기 어려웠다. 정치적 냉소주의, 혐오감등에서 무관심해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것이다.

회사원 鄭必安양(21)은 『정치를 잘 모르고 관심이 없지만 나라를 위해선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金효영양(20·회사원)도 『마음에 드는 정치인은 없지만 어른들이 얘기하듯 정치인들이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한다. 洪성월양(22·회사원)은 『정치가 싫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며 주석을 달았다.

현실인식 감각적

또한 이들 신세대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감각적이고 표피적이다. 사회복지법인인 「사랑의 전화」가 20,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 급히 돈을 꾸고 싶은 사람등의 항목에서 金泳三대통령이 단연 1위에 꼽혔다. TV선전에 출연하는 朴燦鍾의원도 여러 항목에서 거론됐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어떤 뚜렷한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인기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상당수 응답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는 정책노선이나 구체적인 정치행태에 의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 한 보험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朴燦鍾의원을 선호도 1위(24·무직)로 꼽은 崔모양은 『왠지 이미지가 좋아서』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崔양은 朴의원의 소속정당은 물론 정치관이나 정치역정에 대해선 모르고, 알고 있었다.

신세대의 감각적 정치관은 주로 신문의 큰제목, 뉴스해설자의 주관적 멘트, 주변친구의 한마디등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지난26일 저녁 서울종로구의 한 지하생맥주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T사 신입사원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현정부의 개혁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鄭모씨(25)는 『개혁개혁하지만 자기(대통령)가 싫어하는 사람만 잡아넣는게 무슨 개혁이야』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막상 鄭씨는 자신이 말한 표적사정의 구체적 실례는 들지 못했다. 정씨는 나중에 『언젠가 신문사설 제목에서 현정부의 사정이 형평을 잃었다는 제목을 본게 현정부에 대한 그때까지의 긍정적 평가를 뒤집어 버렸다』고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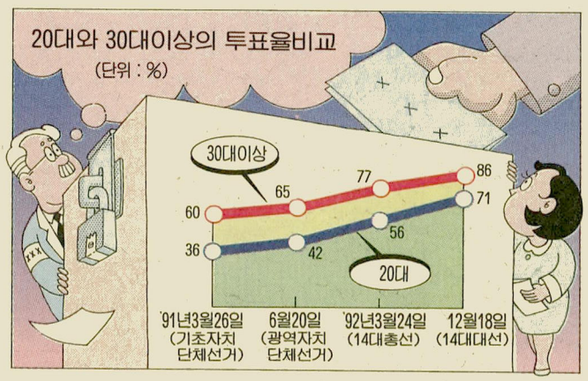
신세대의 또 다른 특징중 하나는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순발력있는 정치적 대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약사법 개정문제가 걸려있었던 각대학 한의대 약학대의 분위기는 다른 학원가와는 딴판이었다. 평소엔 학생자치조직의 볼모지나 다름없던 이들 학과에 순식간에 조직이 생겼다. 토론과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투표 참가율은 80%를 육박했다. 소수의 투표미참가자들도 일단 수업거부가 결정되자 거의 100%의 동참률을 보였다.

민주화의 열기가 드높았던 87년 당시에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사불란한 집단행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치인 정책보다 인상 중시"

그러나 이같은 극단적 주장과는 달리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만약 80년대와 같은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재연된다면 「넥타이부대」(87년 6월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던 직장인들)에 동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긍정의 뜻을 보였다. (李基洪)



20代 「작은단위 선거」일수록 무관심

20대 유권자와 다른 연령층의 투표율 격차는 작은 단위의 선거일수록 커진다. 또한 20대 유권자 가운데서도 서울 부산등 6대 도시 거주자의 투표율(기초의회 32%, 광역의회 41%, 총선 54%)은 기타지역 거주자(기초 43%, 광역 45%, 총선 58%)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때는 대도시 74%, 기타지역 68%로 대도시 거주 20대의 투표율이 더 높았다. 한편 20~24세 연령층과 25~29세 연령층의 투표율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稅制개편」큰 관심

이른바 운동권 비운동권의 구분이 모호해진 세대임을 감안한다해도 학생운동에 몰두하는 학생들의 생활패턴도 예전과는 다르다. 운동권 학생들도 포르노비디오 패션 나이트클럽등 예전엔 소위 「논」 학생」들의 것처럼 인식됐던 생활을 별 저항감 없이 향유한다. 학생운동에 몰두하다 졸업후엔 컴퓨터, 변리사등 각종 자격증 취득에 매달린는 경우가 흔하다. 졸업하자마자 자가용을 구입하는 운동권 출신들도 많다.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이유 앞에서 아무 말씀이 없다.

최근엔 신세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정립하려는 시도도 떠오르고 있다. "신세대에 의한 최초의 본격적인 신세대론주창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미메시스기획은 「신세대, 네멋대로 해라」라는 책에서 「국가」를 애당초 직업관료정치인의 집단일뿐 실체도 없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과 느낌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극단적 주장과는 달리 취재에 응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만약 80년대와 같은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재연된다면 「넥타이부대」(87년 6월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위를 벌였던 직장인들)에 동참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 긍정의 뜻을 보였다. (李基洪)

평소 학생운동이나 정치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다는 金모군(22·경희대한의학과본과 2년)은 『내자신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접부가 한의학의 장래를 망치는 것을 묵과할수 없었다』고 분개했다.

직장의 젊은이들도 세제개편처럼 피부로 다가오는 정책문제에 대해 민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이들에게선 한번의 정치적 집단의사표출을 위해 수없이 밤잠을 설치며 준비하고 고민해야했던 선배세대의 모습을 찾긴어렵다.